

의대 수시 합격생 “더 상위권으로” 올해 입시엔 ‘등록포기’ 더 나온다

서울대 제외 38곳 등록포기 발생
성균관대 추합, 모집인원 3배 넘겨
올해 의대 증원에 추가합격 규모 ↑
경쟁률 6대 1 안되는 의대 늘어날 것

2024학년도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38개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생의 ‘등록 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에서 다수 의대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중복 합격 후 보다 ‘상위권’으로 이동하며 상위권 의대로 초집중화되는 양상이다. 모집 인원이 모두 등록을 포기하고도 추가로 3배 넘는 학생들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고서야 정원을 채운 대학도 있었다. 올해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져 입시계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시 최초 합격자 100%가 모두 등록을 포기한 의대는 19곳에 달했다.

최초 모집인원 대비 추가 합격자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성균관대다. 모집인원 25명인 성균관대는 추가 합격자가 77명으로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 3배를 넘겼다. 이어 ▲가톨릭관동대(모집인원 26명, 추가합격 인원 77명) ▲충북대(19명, 43명) ▲조선대(66명, 141명) ▲을지대(24명, 49명) ▲동국대(WISE)(36명, 69명) ▲한양대(39명, 71명) ▲강원대(24명, 42명) ▲경상국립대(48명, 83명) ▲충남대(68명, 107명) ▲고신대(50명, 77명) ▲동아대(28명, 43명) ▲계명대(50명,



일부 대학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원서접수 시작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스1

71명) ▲고려대(62명, 86명) 등 19개 의대의 추가 합격 규모가 모집인원을 넘어섰다.

소재지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 지역보다 수도권·지방 의대 이탈이 더 심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가천대(메디컬)·성균관대·아주대·인하대 등 4개 경인권 의대에서 95명 모집에 123명(129.5%)이 추가합격하며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강원(128.1%) ▲충청(117%) ▲대구·경북(109.8%) ▲부산·울산·경남(101.5%) 순이다.

반면, ▲호남(86.7%) ▲서울(80.3%) ▲제주(80%)는 추가 합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특히 서울대는 수시 모집인원 89명 모두를 추가 합격 없이 최초합격자로 모집을 끝마쳤다.

수시에서 6개 대학에 원서를 넣은 수험생들이 의대 여러 곳에 중복 합격한 뒤 비교적 상위권 의대에 등록하면서 ‘연쇄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같은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5학년도 지방권 수시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대폭 늘어나 지방권 대학 수시 의대 합격생들은 지난해보다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포기 인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수시 미선발이 늘어나 정시로 넘어가는 수시 이월인원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시부터는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최대 60%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경쟁률이 6대 1도 안 되는 의대도 기존 3곳에서 올해는 17개 대학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 6회 지원 감안 시 6대 1이 넘지 않는 학과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로도 볼 수 있다”라며 “전국 26개 대학 지역인재전형 평균 경쟁률 10.46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지원자 8369명에서 1만 6천여명으로 확대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 인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곳곳서 ‘북한 인권’ 포럼·전시 선포

북한이탈주민의 날 맞아 다양한 행사

참석한다.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맞아 이달 8~14일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서울 곳곳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포럼과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된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가

포럼은 ▲(세션1)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 방안 ▲(세션2)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북한인권의 미래 방향성을 짚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및 동행 방안 등을 살펴본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는 이달 8~13일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북한인권 사진·영상전시회가 열린다. 7월 8~9일에는 북한 탈출 다큐멘터리 ‘비온드 유토피아’ 상영과 출연자와의 만남이, 12~13일에는 ‘남북 MZ세대 인권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반지하 집중 관리… 침수 막는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범창·피난사다리를 설치해왔으나 자주 사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 노후·고장으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막고자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수 우려 반지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2만 8000여 가구 중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 5000 가구에 대해 이달 8~10일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동탄 침수 위험 반지하에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과 개폐형

점검 결과 침수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침수 위험 반지하 거주자가 원하면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투기 차단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SBA, 우수기업 발굴·지원에 43.6억 투입

(서울경제진흥원)

혁신 주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로
CES 서울통합관 운영…기술 선별 것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서울 기업과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기업 발굴·육성, 미래 혁신산업 지원,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을 추진한다.

7일 SBA에 따르면, 올해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에 4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민간과 함께 미래 혁신기업을 찾고 투자 생태계를 키워 고성장 기업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민간 투자기관 및 내부 추천, 3단계 심사를 통해 65개 우수기업을 발굴한다. 스케일

업 센터를 가동, 우수기업의 신속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유망기업 IR 등 네트워킹을 추진한다.

SBA는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서 민간과 함께 서울 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좋은 투자 생태계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혁신산업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SBA는 기술로 변화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하고 미래 유망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의 ‘CES2025 서울통합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투입 예산은 23억 1000만원이다. SBA는 CES 2025에서 서울통합관을 운영, AI·모빌

리티·항공 우주·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술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SBA는 서울이 주도하는 창업 생태계 파트너십 협력 확대를 위해 자치구(금천·관악구), 창업센터(서울AI허브), 대학(서강대)을 포함 16개 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커머스 사업 운영에는 29억 6800만 원을 투자한다. SBA는 글로벌 리딩 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낸다는 목표다. 현재 SBA는 아마존과 수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가동해 입점을 지원 중이고, 알리바바닷컴과는 참여기업 입점을 완료해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질 / 19:56

7월 8일 (월)
음력 : 6월 3일

수도권 날씨
24 ~ 2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3/28, 동두천 22/27, 가평 22/26, 파주 22/27, 서울 24/27, 양평 23/27, 인천 23/25, 수원 23/26, 용인 23/26, 평택 24/28, 백령도 20/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디오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인터뷰 ‘사전 질문지’ 논란… 하원선 5번째 사퇴 공개 촉구
▲트럼프, ‘영국의 트럼프’ 패라지 개혁 당 대표에 당선 축하 /사진 뉴스1

▲‘영국 총선’ 노동 412석, 보수 121석 확정…자민 72석, 극우 5석
▲이라크 총리 “테러와의 전쟁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



▲가자 지구 UN 운영 학교 포격, 최소 16명 사망 /사진 뉴스1
▲‘여야 대리전’ 日도쿄도지사 선거 시작…무당층 표심 어디로